



Siba >> 대한민국과 세계가 함께 나는 축제 Siba에서 만난 세계 제과의 '별'

Siba 2005는 세계 제과·제빵업계의 기라성 같은 거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행사였다. 프랑스 월드페이스트리컵 창시자인 세계양과자연맹 가브리엘 빠야송 부회장, 프랑스제과협회 프랑소와 가르트롱 회장, 일본양과자협회연합회 다카하시 유스케 회장, 프랑스 국립제과학교 파스칼 리양조 교장, 대만제과협회 료본창(廖本蒼) 이사장, 중국제과협회 강일명(江一鳴) 부회장 등 세계 제과업계의 내로라하는 유명 인사들은 Siba 2005을 둘러 보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한국 제과·제빵의 기량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사)대한제과협회와 논의해온 기술교류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다.

Siba 2005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계인 국장, 문화관광부 노일식 과장 등 내외빈의 테이크아웃으로 나흘에 걸쳐 진행될 화려한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테이크아웃을 마친 내외빈은 COEX 박영호 전시2팀장으로부터 Siba 2005에 대한 개요를 보고받은 다음 다함께 전시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전시장 순방에 나선 내외빈의 관심은 제12회 서울국제제과자

경진대회의 출품작 전시에 집중됐다. 이날 경진대회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프랑스제과협회 프랑소와 가르트롱 회장은 "최근 몇 년 새 한국은 국제대회마다 돌풍을 일으킨 세계 제과업계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한국 제과인의 저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950점이나 출품한 한국 제과인의 뜨거운 기술개발 열기에 깜짝 놀랐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시장을 훑어본 내외빈은 (사)대한제과협회 홍보부스 오른편에 마련된 케이크 카페에서 Siba 2005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는 케이크커팅을 마친 뒤 케이크와 차를 나누며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월드페이스트리컵의 창시자인 가브리엘 빠야송 씨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한국대표를 뽑는 국제대회한국대표선수선발전이 열린 3일 내내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출전 선수들을 직접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일본·대만·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Siba 2005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빈들 또한 서울시내 유명 제과점이나 공장을 견학하는 등 한국 제과산업의 이면 저면을 둘러보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